

#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남도 거점도시로 우뚝 설 것”

올해 새해설계

이병노 담양군수

## 농업인 활력 넘치는 스마트 농촌 건설·복지정책 집중 경제 자립도시 구현...AI·문화 접목 관광 콘텐츠 마련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남도 거점도시로 우뚝 선 그날까지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내실 있게 다져온 기반 위에 더 멀리 더 넓게 내다보는 안목으로 미래 담양을 위해 한발 앞서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군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농업과 농촌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

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농촌을 건설할 계획이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 환경 친화형 스마트 축산단지, 기능성 토마토 ‘도담도담’ 육성, 설포라관 추출용 브로콜리 새싹 재배 기술 보급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죽향, 메리핀 등 담양딸기의 우량묘 생산관리체계 구축과 재배면적 확대,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



이고, 14년 연속 전남도 고품질 브랜드 쌀, ‘대숲맑은 쌀’은 유기농 중심으로의

점진적 전환과 수출, 공공급식 납품 확대에 집중한다.

군민 누구나 당당하게 누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 등 어르신과 동행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복지정책에도 공을 들인다.

노인 일자리 활동 일수 확대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어르신 소득 보전과 건강관리 협력체계 구축과 군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방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자립도시를 위한 구상도 밝혔다.

이 군수는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과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담양읍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담양의 성장을 이끌고자 한다.

또한 2020년까지 6천여세대 주택 보급을 목표로 대덕면 지역활력타운, 고서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달빛철도건설사업 확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노후화된 농공단지 개선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주목받는 내륙관광도시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으로는 문화와 예술을 내세웠다.

죽녹원, 영산강문화공원, 메타랜드 등 주요 관광지에 인공지능 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야행관광공간을 만들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 추진, 담양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담양만의 독보적인 관광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담양향우회관 건립사업 등 다양한 지정기부사업과 더불어 기부자 예우 방안을 발굴해 전국 1위의 영공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병노 군수는 “지난해 담양군은 새로운 변화에 과감히 도전하는 역동적인 군정 운영으로 기회와 희망의 도시로 성장했다”며 “올해도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미래 담양의 성장 동력이 될 과제들을 해결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남도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보성’ 출생기본수당 본격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月 20만원 지원

보성군이 저출산 위기 극복과 양육 가정 지원을 위해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남도·보성군 출생기본수당’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전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부모와 아동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둔 가정에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부모와 아동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지 않는 한 올해부터 1~18세에 매월 20만원씩 총 4천320만원이 지원된다.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에 현금으로 제공되고, 보성군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은 모바일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

소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가능하다. 최소한의 서류와 절차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양육 가정의 접근성을 높였다.

보성군은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육비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에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지원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은 보성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인구소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운 정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여수시가 3회 연속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은 여수시 전경.

(여수시 제공)

## 여수시,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 입증

3회 연속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기초지자체서 유일

여수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3회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임을 입증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문체부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지자체의 관광 수준을 진단하고 3개 대분류 지표와 43개 세부지표에 따라 1~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수시는 17개 광역지자체와 15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해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1등급을 받은 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대분류 지표인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의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여수가 유일하다.

이는 스마트 관광통합앱 ‘여수엔’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운영과 다양한 국제회의·지역축제 개최 등으로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2025 관광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차별화된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 순천시, 2024년 신속집행 전남도내 1위

목표대비 집행률 96.5%...민생경제 활력 선도

순천시는 2일 “2024년 신속집행 결과, 전남도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속집행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는 제도로서 시는 2024년 1조6천784억원을 신속 집행하며 목표 대비 집행률

96.5%를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연초부터 10억원 이상 대형 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공정에 맞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연말 불확실한 정치·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안정대책반을 가장 빠르게 선제적으로 운영하며 신속 집행을 강도 높게 관리해 온 결과다.

나아가 올해 전남도내 최대 규모의 본예산이 확정된 만큼 예산의 8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얼어붙은 지역 골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체감하는 전라들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4년 사회조

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였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새해부터 500여억원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신속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신속집행 전남도 대상에 선정돼 4년 동안 8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순천=정기자

## 구례군, 조직 운영 협업 시스템 빛났다

행안부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전남 자치단체 중 유일

구례군은 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조직 운영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례군은 ‘조직 운영 우수사례’ 분야에서 전국 5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전남 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례군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차별화한 결과 이번 성과를 이뤘다. 구례군은 지역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활력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단순히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이 아닌,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준 공직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기반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 곡성, 민선 8기 40개 공약 실천계획 확정

전 군민 버스 무료화 등 지역 활력사업 중점

곡성군은 2일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조상래 군수가 선거기간 제시한 43개 공약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총 3회 보고회 개최를 통해 4대 분야 40개 공약사업 목록을 확정하며 내실 있는 실천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수립한 계획은 지난달 22일 전문가·군민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해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계획은 담당 부서별로 공약사업의 정책 목표와 구

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담겨 있으며, 민선 8기 임기 동안 효율적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전 군민 버스 무료화 ▲군민 기본소득 지급 ▲교육·문화·예술의 명품농촌 육성 ▲관내 생산 기축본 퇴비 무상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추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일수 확대 지원 ▲곡성이 정원하다 정원 프로젝트 ▲파크골프장 36호 조성 ▲바로폰 제도 시행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제 시행 등으로 조 군수가 강조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역 활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 광양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공개

6대 분야 56개 사업...누리집 게재

광양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광양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5년 새해에는 ▲여성·아동(21건) ▲청소년·청년·중장년(6건) ▲노인·복지(7건) ▲경제·문화·생활(17건) ▲농어촌(2건) ▲안전·환경(3건) 6대 분야 56개 사업에서 제도와 시책에 변화가 생긴다.

여성·아동 분야(21개 사업)에서는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광양시만의 맞춤형 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민 체감형 복지 사업을 신규·확대 시행한다.

광양에서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현금 지원금 최대 4천40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되며 2024년 1월 이후 출생아에 18세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을 (총지급액 4천320만원) 본격 시행한다.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 소재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중증 질환자 관의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청소년·청년·중장년 분야(6개 사업)에서는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세부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지역 돌봄 사업, 미래형 공교육 강화, 지역 산업 연계 맞춤형 취업 지원 교육이 세부사업으로 시행된다. /광양=양홍렬 기자